“드디어 내일이면 주말이다...”

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네.

그래도 오늘 수업은 다 끝났다. 이제 학생회 활동만 끝내면 내일부터 이틀은 휴일이다.

물론 휴일이라고 딱히 하는 건 없지만.

늦게까지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거나, 멍하니 핸드폰 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거라고.

학교에서처럼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곳에서 벗어나, 약간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요즘 학생회 멤버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휴일에 좀 회복해야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생회 활동까지는 시간도 남는데, 집에나 들렀다가 와야겠다.

교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도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안 나와서 한참 기다렸잖아요.”

“아, 미안. 기다리는 줄 몰랐어.”

“어휴. 다음부터는 빨리 나오세요, 알겠죠?”

“...근데 오늘 기다린다고 말했었나?”

“아뇨. 그치만 저 말고 다른 선배 친구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빨리 나와야죠.”

채아람.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학생회 때문에 그래?”

“아, 그게요. 선배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채아람이 주위를 살펴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선배.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집에서 쉴까 하는데. 너는?”

“저, 저는 뭐할까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하긴 채아람처럼 친구가 많은 애는 고민될 만하지. 누구랑 뭐 하고 놀지 선택지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선배. 집에만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긴 해. 노곤하게 시간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혹시 선배. 주말에 콘서트 볼 생각 없어요?”

“콘서트?”

“네. 댄스 콘서트... 같은 건데. 근처에서 한다고 들어서요.”

“저도 가려는데, 선배도 관심 있으면 주말에 같이 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하지만 콘서트면 티켓 값이 비싸지 않아?”

“고, 공짜래요! 규모도 작아서 무료 콘서트래요!”

“음... 그래?”

무료 콘서트라. 춤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려다가 초조해하는 채아람이 보였다.

...채아람, 다른 친구들한테 춤추는 거 말 안 했댔지? 그것 때문에 원래는 콘서트에 혼자 가려고 했을 거다.

하지만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가자고 권한 거겠지.

콘서트라... 한 번 가볼까?

“공짜면 가도 좋겠다. 나 콘서트는 가본 적 없거든.”

“진짜요!? 그럼 선배, 주말에 같이 콘서트 가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래. 근데 콘서트 시간이 언제야?”

“선배는 언제가 편한 대요?”

“무슨 소리야? 콘서트면 내가 시간에 맞춰야지.”

“마, 맞다. 그렇죠! 약간 헷갈렸다.”

채아람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뭐지. 또 이상한 장난이라도 치려는 것 같은데.

“시간은요. 제가 선배한테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수상한데.”

“하나도 안 수상해요! 그러니까 문자 받으면 꼭 오셔야 해요! 꼭이요!”

계속 의심스럽게 쳐다보니 채아람이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체 뭐지.”

주말에 왠지 이상한 일에 말려들 것 같은 이 찜찜함.

내 착각이겠지?